10.15686/fkl.2025..66.224

평등의 페미니즘과 전복적 타자를 향한 여정
-『안개부인』론

강옥희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목차

1 서론
2 보부아르의 수용과 타자화된 여성 주체의 자각
3 성적결정권의 획득과 모성성의 탈피를 통한 주체되기
4 존재 의미의 상실과 해방된 주체되기의 좌절
5 나가는 글

이 논문은 2025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음(2025-A000-0249)

국문초록

『안개부인』은 1960~70년대의 대표적인 여성 소설가 전병순의 작품으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석의 『자유부인』의 아류작으로, 유한부인의 바람기를 다룬 통속적인 작품 정도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안개부인』은 유한마담이나 자유로운 여성의 대명사로서 '자유부인'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비롯한 관습적 서사의 익숙함과는 다른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이야기의 변주로 독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안개부인』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주의 담론이 본격화되기 전 타자로서의 여성 주체가 해방과 자각을 호출한 서사이다. 1960년대 여성의 사회경제적 존재 조건과 성적 주체의 욕망, 남성 주체의 타자로서 해방의 욕망을 지닌 파격적인 여성 주인공의 형상화를 통해,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성에 대한 욕망, 여성 주체로서의 자율성, 여성을 부속적인 위치에 놓는 근대 가족제도와 성 역할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1960년대 페미니즘이나 여성 문학에 대한 수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 제기한 남성의 타자인 여성 주체의 정체성과 자각의 문제를 선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문핵심어: 전병순, 『안개부인』, 제2의 성, 페미니즘, 여성 주체, 성적 욕망, 타자

1 서론

1960~70년대의 대표적인 여성 소설가 전병순은 폭넓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많은 베스트셀러 작품을 내놓았지만 연구사에서는 그리 주목하지 않았던 작가이다. 전병순은 1951년 『문학』에 실린 「준교사」를 시작으로 60년 『여원』지가 주최한 제5회 여원 신인상 작품공모에 「뉘누리」가 당선되며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해방 이후 근현대사의 민족적 갈등을 형상화한 작품이 드물었던 60년대 초반에 여성작가의 섬세한 필치로 여순반란을 소재로 한 『절망 뒤에 오는 것』(1961)으로 한국일보 장편소설 현상모집에 가작으로 당선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현부인』(1965), 『독신녀』(1966), 『또 하나의 고독』(1968), 『안

개부인』(1968) 등의 히트작을 펴냈고,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 작품들은 신문연재 후에 단행본으로 발간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중에서 『또 하나의 고독』은 신영균, 윤정희 주연의 「당신」(1969)으로, 『안개부인』은 신성일, 윤정희 주연의 「안개부인」(1971)으로 영화화되어 대중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신」은 개봉 당시 100,000여명이 관람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제15회 아시아·태평양영화제(1969) 각본상, 제6회 청룡영화상(1969) 색채촬영상, 미술상, 제6회 백상예술대상(1970) 시나리오상을 받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전병순의 대중장편소설들과 소설의 인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는 대중의 엄청난 호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연구사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특히 대중장편소설들은 전병순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여성작가들의 대중적인 작품에 비해서도 관심이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안개부인』 역시 일탈하는 여성,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의미하는 보편명사로서 '자유부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1950년대 대중소설의 최고봉이었던 정비석의 『자유부인』의 그저 그런 아류작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그동안 전병순 작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작품 속에 형상화된 여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받아들이고 열광했던 독자 대중과 달리, 대중소설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던 문단과 연구자들의 상황에서 기인한다.[1]

---

1 최근 대중소설에 대한 연구는 전에 비해 활발해졌지만 여성작가들, 특히 대중적인 작품을 주로 창작한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대중문학에 대한 경시와 함께 남성 중심 문학장에 만연했던 여성 문인들에 대한 무관심에서 기인한 것도 크다. 1960년대 여성작가로서 전병순에 대한 연구 역시 대중적인 인기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전병순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복순, 「1960년대 소설의 연애전유 양상과 젠더」, 『대중서사연구』 제19호, 대중서사학회, 2008, 7-56쪽., 오화영, 「현대소설을 통해 본 낭만적 사랑에 관한 연구: 여성잡지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이명희,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 시대와 사회 읽기-전병순 『강원도 달비장수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36호, 상허학회, 2012, 401-442쪽., 임금복, 「현대문학사의 복원-문학사 밖의 문인들 ; 전병순의 1960년대 대중 장편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7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55-90쪽., 정미선, 「전병순의 작가적 생애와 소설세계 연구-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여성 주체 형상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23권 2호, 한국 문예창작학회, 2024, 131-164쪽., 정미선, 「『독신녀』의 영화화에 나타난 1970년대 한국 문화의 젠더 정치—소설 『독신녀』와 영화 〈독신녀〉의 관계적 규범 변화

전후 문학장에서 박경리, 강신재, 한무숙, 정연희, 손장순, 박계형, 신희수 등 기성세대 여성작가와 여대생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여성작가들은 이전의 남성작가들과는 다른 차원의 작품활동을 보여준다. 1960년대 활발하게 활동했던 여성작가들은 교양과 지성을 갖춘 젊은 여대생 작가로 젊은 여성들의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하거나 중산층 가정에 귀속되어 중산층 여성의 서사를 통해 여성 주체의 문제를 형상화하거나, 소설가로서의 작가 의식과 생활인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진 작가들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전병순은 생활인으로서의 감각이 남달랐던 작가이다.[2] 본격문학 작가로 문학 활동을 시작했던 전병순은 1960년대 들어 대중소설가로 자리 잡았다. 이후 여타의 여성 작가들이나 여대생 작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활인의 존재감'을 바탕으로 대중의 흥미에 부합하는 서사로 사랑을 받았다. 작가가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당대적 현실, 가부장적 질서 하에서 발버둥 치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몸부림, 새로운 젠더적인 감수성은 신문연재라는 매체의 대중성과 결합하면서 많은 대중 독자를 끌어들였다. 전병순의 작품 대부분이 대중적이지만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작가적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99호, 중앙어문학회, 2024, 211-243쪽., 정미선, 「70년대 전병순 소설의 탈혼 모티프에 나타난 파레시아적 여성 주체의 젠더 정치-『속 현부인』과 『그 눈물에 넘치는 강』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97호, 한국비평문학회, 2025, 95-127쪽., 정호웅, 『약전으로 읽는 문학사』2, 소명출판, 2008., 최미진, 「사회적 멜로드라마의 역사성과 대중성—전병순의 『절망(絶望) 뒤에 오는 것』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319-343쪽., 최미진, 「부인명(夫人名) 대중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정비석의 〈자유부인(自由夫人)〉과 전병순의 〈현부인(賢夫人)〉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2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185-203쪽., 하채현, 「10.19: 비국민과 개죽음-『절망 뒤에 오는 것』, 『여수의 눈물』,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중심으로」, 『픽션과논픽션』 제5권 1호, 픽션과 논픽션학회, 2023, 135-160., 허예슬, 「한국 현대 가정 서사 연구: 1950-60년대 신문연재소설에 나타난 식모와 가정교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

2 최다정, 「1960년대 여성문학의 정동정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최다정은 1960년대 여성문학의 정동을 분석하여 '여성 서사'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여성작가를 대학생여성소설가, 중산층여성소설가, 생계형여성소설가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다. 그중에서 정연희, 박순녀, 전병순 등을 생계형 여성 작가군으로 명명하고, 그들의 서사를 '소설가'로서의 작가 의식과 '생활인'으로서의 존재감 사이에서 탄생한 결과물로 보고 있다.

고민과 다양한 문제의식이 드러났다면,『안개부인』은 통속적이지만 작중의 주인공이 지니고 있는 젠더적 감수성의 결이 여타 작품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는 작품이라 더욱 이채롭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여성문학사의 외연을 넓히고 결락되어 있던 연구의 복원을 위해서, 또한 당시의 시대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대중적인 소설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외면받았던 전병순의 작품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개부인』은 그동안 보아왔던 중산층 여성의 통속적인 연애 서사의 틀을 차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통속적인 서사로, 유한마담의 일탈을 다룬 작품으로만 읽어서는 기존의 60년대의 대중 서사를 다룬 작품과 별 다른 점이 없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여성 서사의 맥락처럼 젠더적 각성과 가부장적 일탈로만 설명하기에는 당대의 여성 서사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안개부인』에 대한 논의는 전병순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도 많지 않은데 대중장편소설로서 여성 주체, 젠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임금복, 정미선, 김복순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임금복은 전병순의 대중장편을 분석하면서 "남다른 성격의 소유자 여성을 통해 중산층 부인의 권태와 바람기를 통해 60년대 중류 사회 여성의 이면을 해부"[3]한 작품으로 평가하며 여성 주체의 성격적 특징을 논의하고 있다. 정미선은 작가의 생애 분석을 통해 그녀가 가진 경계적 삶의 구조가 비권위적 세계관을 갖게 했고, 이러한 경험이 작중의 인물과 주제에 반영되었다고 본다.『안개부인』은 여성주체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가부장적 규범 안에 갇힌 중산층 기혼여성의 가부장적 규범의 일탈과 여성으로서 자각하는 인물을 그려냈다고 분석한다. 김복순은 "사회체계로서 연애는 1960년대의 계층적, 계급적, 민족적(또는 국가적), 젠더적 자기보존 욕망을 제시"하는데『안개부인』은 "'안개 속에 가려진 여성의 현실'을 여성 젠더의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1960년대적 여성의 자유'의 의미를 새롭게 읽"[4]어낸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의 논의들은『안개부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작품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논의를

3 임금복, 앞의 논문, 11쪽.

4 김복순, 앞의 논문, 32-33쪽.

바탕으로 60년대 젠더의 문제, 여성의 주체성과 타자성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가 60년대의 여성 서사와 어떻게 다른 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살필 때, 60년대 대중적 여성 소설가였던 전병순의 작품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안개부인』은 50년대의 『자유부인』과는 다른 60년대의 가치관과 세태의 변화를 가미하며 대중에게 익숙함과 동시에 새로움을 제공했다. 작중 주인공 정우의 연애와 성, 사랑, 가정의 이야기는 대중 서사의 익숙함을, 서사의 배경이 되는 공간과 생활의 감각은 당대에 대한 예리한 현실감각을 보여준다. 4.19와 5.16 군사정변 이후 60년대는 새로운 정치질서의 등장과 함께 50년대와 다른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한 서울의 인구급증, 교육열의 팽창, 가부장적 질서의 귀환에 이르기까지 사회, 경제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한다. 50년대 광주지역에서 생활했던 작가는 60년대 초반 서울로 이주해서 작품활동을 했는데, 이러한 경험은 생활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주었다. 작가는 80년대 한 대담에서 60년대는 군사정부의 등장과 본격적인 경제 개발정책으로 "교육열과 인구의 서울집중"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아이들 교육을 위한 집이나 전세방을 얻어두고 두집 살림을 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말한다. 이때부터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려 "사회의 전체적인 기풍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식의 목적 우선주의로 변"했고 윤리의식이 무시되기 시작했다고 본다.[5] 작품을 연재하던 시기에 대한 작가의 진단은 『안개부인』이 당대의 사회변화에 대한 예리한 관찰이 바탕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성적 시선에서 여성의 일탈을 다뤘던 『자유부인』과 달리 여성작가가 그리는 여성 주체의 자각과 일탈을 통해 대중이 『안개부인』을 『자유부인』의 아류가 아닌 다른 차원의 작품으로 수용하게 했음을 보여준다.

즉, "남성젠더 시선에 기초하여 '방종'과 '탈선' '문란'의 기표로 각인"[6]된 "부정한 여성에 대한 반어적 명명"[7]으로, 기존의 관습을 벗어난 유한마담이나 자

5 「서울신문 연재 작가들은 말한다」, 『서울신문』, 1983.11.22.

6 김복순, 앞의 논문, 33쪽.

7 최미진, 「부인명(夫人名) 대중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 정비석의 〈自由夫人〉과 전병순의 〈賢夫人〉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21호, 2004, 192쪽.

유로운 여성의 대명사로서 ‘자유부인’, 이라는 사회적 맥락이 형성되면서 갖게 된 관습적 서사의 익숙함과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이야기의 변주로 독자의 흥미를 끌었다. 작품 연재 후 전병순은『자유부인』의 작가 정비석과의 대담에서 “한국 남성들은 여성의 발전에 비해 퍽 늦어요. 여성은 능력은 발휘 못해도 머리는 깨쳐있지 않아요? 어느 세상인데 내가 그걸 참겠느냐는 식이지요. 내 아내도 이럴지 모른다는 생각을 남성은 안 하나 봐요.”, “부정은 으레 남성들에게만 허용되고 묵인되어 왔어요. 같은 인간이고 같은 감정인데 여성도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저는 재미있게 보았”[8]다고 밝히고 있다. 작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안개부인』은 이전에 보았던 다른 부인명 작품들과는 달리 “남편의 방탕에는 관대한 편이면서 여자의 부정에는 냉혹한 현실”에서“외출이 자유스러운 부인과 직업상 갇혀있게 되는 남편”[9]이라는 설정을 통해 다른 변주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유로운 부인과 갇힌 남편’이라는 설정을 통한 이야기의 변주에는 보부아르의 논의를 수용한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다. 작가는『안개부인』을 쓰기 전에 보부아르의『제2의 성』을 숙독하고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여성작가로서의 할 바를 알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작품 안에는 당시 보부아르가 주장했던 다양한 논의가 녹아 있다. 본 연구는『안개부인』의 분석을 통해 작중의 여성 주체가 자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부아르의 논의가 어떻게 작품 속에 스며들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한 논의가 선행될 때 전병순의 장편소설 중 가장 파격적인 작품『안개부인』과 전병순의 작품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2　보부아르의 수용과 타자화된 여성 주체의 자각

『안개부인』은 가부장적인 주인공 세찬과 현모양처지만 주체적인 여성 의식을 지닌 남정우를 통해 당대의 다양한 사회문제와 가부장적 질서하에서 타자화된 존

8　「자유부인에서 안개부인까지 15년, 사회 풍조와 여성」,『서울신문』, 1969.3.15.
9　「「독신녀」,「현부인」의 작가, 전병순씨의 신작소설「안개부인」」,『주간중앙』, 1979.5.16.

재인 여성의 자각과 좌절을 보여주고 있다. 남정우는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지방 의사 세찬의 부인으로 호기심이 많고 사교적이며, 낭만적 감성이 뛰어난 인물이다. 그녀는 가부장적인 억압과 결혼제도에 대해 문제의식과 권태를 느끼지만, 남편의 인생 계획대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간다. 정우의 남편 세찬은 의사이지만 충실한 직업인이고, 박사학위는 있지만 학구적이거나 창의적이지 않은 상식인이다. 아들 둘을 서울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일념 하에 서울에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정우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을 오르내린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변화 없는 따분한 삶에 싫증을 내던 정우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 한상현과 국민학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박영호에 대한 호기심으로 마음이 들뜬다. 정우는 박영호와 한상현 사이에서 감정의 유희를 즐기고, 한상현과 충동적으로 육체관계를 맺고 은밀한 기쁨을 느낀 후, 영호와도 육체관계를 맺는다. 남편 세찬이 외도 사실을 알고, 부정한 행실을 힐난하며 집을 나갈 것을 명하자, 올케네 집으로 가서 세찬에게 후회와 반성의 편지를 보낸다. 그러나 기다려도 답이 없자, 세찬의 허락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세찬은 가학적인 육체관계로 정우를 대하고, 그녀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남편의 행위에서 신선한 만족과 새로운 매력을 느낀다.

『안개부인』은 주체가 되지 못한 타자화된 여성 남정우를 통해 당시 여성의 현실을 매우 잘 보여준 작품이다. 정우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중산층 여성으로 가족제도 및 가부장적 규범에 묶여 있는 여성이다.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여성 주체로서 자기감정에 충실하고 안에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인물이다. 또한 남편이 외도 할 경우 본인도 똑같이 외도하겠다는 생각을 남편에게 당당하게 피력한다. 정우의 이런 태도는 남성 주체의 외도나 성적인 방종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여성들의 정절이나 규범에 대해서는 가혹한 질타를 가하는 가부장적 남성의 권위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남성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관습적 이념이나 규범에 대해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피력하고, 성적 욕망과 동기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색다른 여성 주인공의 등장은 작가가 여성적 자의식을 지니고, 현실의 세태를 명민하게 관찰하고,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한 결과이다.[10]

전병순은 가부장적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당차게 남녀평등의 생각을 피력하

는 여성 주인공을 통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여성을 그려내고 있다. 작가는 1979년 자유문학사에서 출간한『안개부인』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작품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당당한 여성 주체를 향한 지향을 볼 수 있다.

> 사람은 여자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자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명의 전체가 암컷과 거세체와의 중간 산물을 만들어 내어, 거기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있을 뿐이다 라는 보봐르의 말에 공명한다. 성문제뿐 아니라, 경제권도 그렇다. 가냘프다는 기성관념으로 존재하던 여성이 갑자기 홀로 되어 대가족의 부양책임이 지워지면 여자는 점자 용부로 변해 가, 남성 못지않은 경제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가는 예를 허다히 본다. 이 작품에서는 다만, 전자만을 문제 삼아 보았으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녀는 모름지기 인격적인 상호존중으로써만 맺어질 일이라는 것과, 우애적 이해와 협조만이 영원히 굳건하고 바람직한 부부로서의 유대가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다.[11]

작가는 보부아르의 말에 공명한다고 전제하며『안개부인』에서는 전자 즉 "성문제"에 대한 부분만을 문제 삼았으나 이 작품을 통해 남녀 간의 "인격적인 상

---

10 60년대 문학장에서 특히 박계형, 신희수 같은 여대생 작가들의 장편소설에서는 파격적으로 작중인물들의 성적인 욕망이나 그에 대한 실천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만, 본격문학으로 등장했던 여성작가들이 다루고 있는 여성 주체들 중『안개부인』의 정우만큼 파격적이고 성적인 도발을 감수하는 인물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 독자들의 반응은 매우 달랐다.『안개부인』연재 후 작가는 한운사와의 대담에서 "새바람이 왔으면 얼마나 불었기에 정우처럼 흔들거리는 여자도 대단치 않게 여기는 독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여자들이 그러는데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정우를 두 번밖에 흔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라며 독자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다. 작가의 전언에 따르면 당시 독자들은 오히려 주인공의 일탈과 욕망을 바라보면서 작가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인공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안개부인」과「엽전」의 대화」,『서울신문』, 1969.3.15.

11 전병순,『안개부인』상, 자유문학사, 1979, 299쪽.『서울신문』, 1968.6.17~1969.3.15.까지 연재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자유문학사 1979년 판이다. 이하 본문 인용 시 본문에 쪽수만 밝힌다.

호존중"과 "우애적 이해와 협조"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작가는 1969년『안개부인』초판에서 "한동안 보부아르의『제2의 성』을 숙독하였다. 나의 오랜 여성적 자각은 이때부터 눈을 뜨고, 이론적 체계를 갖춘, 여성과 인간의 자유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참으로 대담하고 풍부하며, 그 종합적인 사상과 체험의 집대성 같은 그녀의 저서는 나에게 숨찰 만큼의 편달을 주었고, 여성작가로서의 나의 할 바를 가리켜 주었다"[12]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안개부인』을 쓰면서 작가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자로 만들어진' 타자로서 여성 주체의 문제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병순의『안개부인』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보부아르의 이론적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제2의 성』은 총 2권으로 1권은 1949년 6월, 2권은 같은 해 11월 출간되었다.[13]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에 이용호가 2권 1부 형성기를 번역하였고,『제2의 성1』이라는 제목으로 백조서점에서 처음 발간하였다. 1963년 조홍석 번역의『(한국일보의)여자의 마음, (『제2의 성』의) 자유의 여성』이 발간되었다. 제1부는 한국일보사 가정란에 투고한 이백 여 명의 여성이 사회생활에 직면하여 체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투고한 것을 기재하여 당시 여성 생활에 대해 알 수 있고, 2부는 보부아르의 연애하는 여인, 자유의 여성을 합편하여 한 권으로 출판하였다. 63년에 발간한『제2의 성』은 2권의 3부와 4부를 번역했는데, 역자는 여성이 왜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구속되어 있는지, 왜 남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애하지 못하고 남성에게 종속되어 연애에 실패하는지 말하고, 여성이 자기 스스로 자유의 권리를 깨달아야 함을 주장하며 모든 여성의 해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번역한다고 밝히고 있다.[14]

> 여자의 비극은 부단히 본질적인 것으로 자기를 확립하려는 모든 주체의 기본적인 요구와 여자를 비본질적으로 형성하길 바라는 상황 사이의 갈등이다. 여자의 신분에서 어떻게 인간존재가 완성될 수 있는가? 여자에

12 전병순,『안개부인』상, 국민문고사, 1969, 3쪽.

13 시몬 드 보부아르, 이정순 역,『제2의 성』, 을유문화사, 2022, 10쪽.

14 조혜란,「『제2의 성(Le deuxieme sexe)』의 초기 한국어 번역과 수용: 이용호의 1955년, 1964년 번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49-50쪽.

> 게는 어떠한 길이 열려 있는가? 어떤 길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가? 존속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독립을 찾아내야 하는가? 어떠한 환경이 여자의 자유를 제한하며, 여자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야말로 이제부터 우리가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다.[15]

작가가 숙독했던『제2의 성』을 집필한 시몬느 드 보부아르는 여성이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남성이 주는 혜택에 안주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보부아르는 여성이 왜 남성에 비해 열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집중하며, 여성성에서 여성 열등성을 찾는 것을 비판한다. 보부아르는 여자의 비극이 여성을 비본질적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결과 보부아르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주체가 아닌 만들어지는 '타자'로 규정하고, 여성의 문제는 남성의 지배하에서 타자인 자신의 위치를 전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체가 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보부아르의 저작을 통해 '여성적 자각', '여성과 인간의 자유'에 감명을 받은 작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주체가 아닌 만들어지는 '타자'이지만, 그것을 전복하고자 열망하는 주체적인 여성으로『안개부인』의 주인공 남정우라는 인물을 만들어 냈다. 작중에서 정우는 아내로서 가정을 경영하고 남편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 것을 요구받는 존재이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안에서 '아내'라는 역할로 규정되고, 독립적 주체가 아닌 남성 중심 질서의 부속물로 존재한다. 즉, 여성이 자기 자신을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사회적 규범 속에서 길들여져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되는 것이다."[16] 그렇지만『안개부인』의 정우는 사회적 규범에 길들여져 "여자가 되었지만", "호감을 품은 사람에게는 친절을 다하고", "남의 일에 깊이 관여"(상 32)하는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이런 천성으로 인하여 색다른 자극을 받았을 때, 여성 주체로서 자기의 삶이 억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개인적 욕망을 드러내며 주체적 자아로서

15 시몬느 드 보부아르, 앞의 책, 42쪽.

16 위의 책, 389쪽.

살아가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하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남성의 타자로 존재하지만 평등한 주체되기의 욕망을 강하게 추구한다.

평등한 주체로서의 관계에 대한 정우의 생각은 연애에 대한 생각에서 두드러진다. 정우는 남편과 자기 사이, 특히 남녀 간의 관계에서 외도와 연애의 문제가 결부될 때 평등한 주체로서의 욕망을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60년대 여성작가들의 대중소설에서 감정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연애는 열정적 사랑과 유사하며 이렇게 구성된 내면이 전후 타자화한 섹슈얼리티랑 닿아 있고 섹슈얼리티는 자의식을 구성하는 주요한 축이라고 보기도 한다.[17] 그러나 전병순의 『안개부인』에서 남자들에 대한 정우의 관심은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연애가 아닌 단순한 호기심과 새로운 욕망에서 오는 섹슈얼리티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안개부인』이 당시 다른 여성작가의 연애와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작품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 서울 갈 날이 또 닥치기 전에 해야 할 집안일이 많다.
>
> 간장도 달여야 되고, 마늘쫑, 오이지도 담가야 되고, 고록젓, 황새기젓, 부각 김자반도 부쳐야 된다. (…) 여름살이도 챙겨, 양복장과 서랍장을 정리해야 되고 긴장이 이완되어 있는 식모와 찬모를 다시 죄어 매어 둘 일도 중요하다.
>
> 병원에서의 세찬 못지 않게 안집에서 정우의 할 일도 많았다.(상, 48-49)

> “남편이 외도 좀 했대서 울고불고 남편만 붙들고 늘어져 신경질을 부리고 하는 여자들을 나는 우습다고 생각해요. 가정을 지닌 남편의 기분이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같은 인간인 이상 여자도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하리라는 법도 아니겠는가 싶으니까 참으로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 한 번 눈을 질끈 감고 시도해보자는 거죠. (…) 여자들도 바로 그런 자세로

17 손혜민, 「연애대중과 소설: 1950-60년대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115쪽.

남자들하고 가볍게 사귀면 되지 않겠어요?” (상, 88-89)

“그거야 물론 인제 내게도 외도 한 번쯤 할 자격이 생긴 셈이지만 말예요.(…) 나는 한번 마음이 동하면 아마 당신처럼 그렇게 싱거운 외도 같은 것으로 흐지부지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당신처럼 아무한테나 곧 끌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지는 않겠지만 말예요.”(상, 161)

정우는 가정에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의 타자이지만 평등한 주체로서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의무감에 그다지 매여 살고 싶지 않은”, 남편 “세찬의 의지대로 눌렸던 자신의 위치라는 것을 생각하자 갑자기 구역질이 넘어올 것 같은”(상, 308) 굴욕감을 느끼며, 남편의 타자로 악압 되어 있는 자신의 처지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 남편이 외도를 하면 본인도 같이 외도할 권리가 있고, 남편의 외도에 맞대응해 가볍게 남자들을 사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원』의 수기를 통해 60년대의 여성 주체들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육체적 경험을 통해 새롭게 성담론이나 연애의 담론을 구성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기 속 대부분의 여성서술자들이 후회와 자책으로 일관하면서 순결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상황[18]이었음을 볼 때, 남녀가 성적 결정에 있어서 동등해야 한다는, 『안개부인』의 주인공 정우가 보여주는 남편에 대한 태도는 매우 파격적이다.

보부아르는 역사 속에서 여성은 항상 주체의 상대, 즉 타자로 규정되어 여성은 남성 주체가 규정한 아내, 어머니, 순종적 존재로만 정의되었다고 본다.[19] 『안개부인』의 주인공 정우는 억압적인 가부장제 안에서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로 규정되고,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남편과 가족을 위한 기능으로만 평가되는 전형적인 타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정우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 양육을 위해 힘을 다하는 ‘좋은 아내’, ‘훌륭한 어머니’라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

18 장미영, 「여성 자기서사의 서사적 특성 연구-『여원』 수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84쪽.

19 시몬느 드 보부아르, 앞의 책, 389-576쪽.

것이 자신을 억압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타자성을 벗어나 주체로서 욕망하는 권리를 추구하며 남성과 평등한 주체로 서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3 성적결정권의 획득과 모성성의 탈피를 통한 주체 되기

보부아르는 "결혼은 여자를 내재성에 가두어둔다. 그러므로 여자는 과거의 연장인 현재에 머물며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안정된 생활을 이룩하는 것"[20]라고 주장한다. 내재성이란 현재 상태에서 안주하면서 초월의 권리, 자기 창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여성들이 남성들의 지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초월적인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남성들이 베푸는 혜택에 안주하려는 것을 말한다.[21] 보부아르는 모든 여성의 역사는 남성이 만들었으며 그 결과 여성은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자를 정의하는 대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결혼한 여성은 집안일을 통해 기생적이고, 종속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결혼의 비극은 개인의 역사나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제도상의 결함으로 경제구조의 각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부아르는 결혼이 여성의 억압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개별적인 자율과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 바람직한 관계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독립과 외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22]

『안개부인』의 정우는 남편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이 정의하는 대로, 기생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고 싶은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 가족이 우선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정 부인의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가정 부인이나 누구의 엄마보다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꿈이 더 크다. 무위도식하는 "밥벌레 같은 인간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비관"(상, 190)하거나 "남의 의사대로, 그이의 뜻대로 나를 적응시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의 무의미를 생각하면, 그런 때는 정말 가정을 뛰쳐나가고

20 위의 책, 612쪽.

21 변광배, 『제2의 성, 여성학 백과사전』, 살림출판사, 2007, 116쪽.

22 최애희,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에 나타난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2쪽.

싶을 때”(하, 52)가 있다고 토로하는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자기의 방식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잘 보여준다.

> 여자도 좀 대외 활동의 분야가 주어져야겠어요. 학교 때부터 나는 남달리 극성이고 활동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운동을 해서 건강에도 자신이 있구요. 그런데 하필이면 고르고 골라 우물 속 개구리 같은 시골의 외과 의사 마누라가 될 건 또 뭐예요. 처음 개업 초엔 진찰실이나 병실에 자꾸 나가고 싶어 안방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야죠. 간호부장쯤 내가 맡아 했으면 싶더군요. 나는 할 일이 없어지면 병이 나 버려요.(상, 129)

> 원래 나는 이렇게 가정에만 파묻혀 무능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
> 여자라도 뭐든지 학문을 하나쯤 지니고 싶었어요. 하다못해 문학이라든지 미술이든지 기악 같은 거라도 말이지요. 시국 때문에 대학도 중퇴해 버리고 별수 없이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고 하릴없는 세월만 이렇게 보내니, 정말 마음이 공허해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하, 51)

여성도 대외 활동을 해야함을 역설하거나 가정에 파묻혀 무능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토로는 정우가 진심으로, 주체적인 자아로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싶은 욕망을 지닌 인물임을 잘 보여준다. 시국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가정에 매몰되었지만 학문이라도 하나 갖고 싶다는 정우의 마음은 가부장적 남성의 타자가 아니라 남성과 동등한 당당한 주체로 서고자 하는 열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우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남편의 타자가 아니라 주체로 서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가정 부인이 아닌 성적 욕망을 가진 여성으로서 성을 통해 여성적 주체성을 갈구하기도 한다. 보부아르는 성이 결혼생활의 억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며 결혼생활에서의 성생활은 의무감이거나 서비스로 받아들인다고 본다. 그렇지만 자유와 욕구의 상호 인식이 전제된다면 여성에게 만족스러운 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혼생활에서는 있음직 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았다.[23]

그런 상황에서 “간통, 우정, 사교계 생활은 부부생활에서 기분 전환 거리가 되는 것”[24]이라고도 말한다. 보부아르의 견해에 따르면 주체의 타자로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혼생활에서 간통은 여성 주체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한 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안개부인』의 정우는 “여자들의 불행과 몽매는 자고로 그 성의 미개방이랄까, 스스로의 부당한 자박 때문에 언제까지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상, 90)고 생각하는, 당대 가정 부인으로서는 보기 힘든 파격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우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서울을 오가는 게 힘들고 권태롭다 하지만 새롭게 만나거나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큰 호기심을 느낀다. 우연히 기차에서 만나 관찰하고 인연이 된 한상현뿐만 아니라 동창인 영호를 만나는 이유도 그를 통해 경험하는 새로운 자극 때문이다. 새로 생긴 호텔의 커피숍, 골프장, 요정 등 색다른 자극에 남달리 예민하게 반응하는 까닭이다. 정우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파격적인 성의식은 한상현과의 육체적인 관계 맺기로 이어진다.

그녀는 “상현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자기에게는 그러한 욕망이 싹트고 자란 가슴이 있었다는 것을 남편 이외의 남성에게 비교적 객관적이며 여유 있는 관찰의 눈을 뻗치고 있었던 것”(상, 202쪽)을 느낀다. “정직하게 냉정히 반성할 때 정우는 상현이 이끄는 대로 가는 데까지 가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상, 200) “부정스런 동경심”(상, 203)으로 결국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 한상현과의 관계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대신 남편과는 경험할 수 없었던 육체적 열락에서 원초적인 기쁨을 느낀다. 작중에서 정우가 저지른 행위는 가정 부인의 간통이자 가부장제 하의 정절 이데올로기를 정면에서 깨뜨린 행위이다. 그러나 간통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가정을 깨뜨리고 싶어하지 않고, 새롭게 경험한 성적 쾌락을 통해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찾아가며, 심지어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지 않은 채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극을 원한다.

---

23 위의 논문, 31쪽.

24 시몬느 드 보부아르, 앞의 책, 767쪽.

정절을 잃고, 아니 간음을 저지르고도 왜 집을 나오지 않는가? 살을 저미는 듯한 아픈 뉘우침이 왜 없는가. 아니 그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무언지 은밀한 기쁨을 싸감춘 가슴처럼 들뜬 기분과도 같은 제 마음을 깨닫고 정우는 더욱 놀랐다.(상, 212)

이게 결코 영원과 통하는 행복이 아닌 줄 자각하면서도 찰나적 기쁨이 최상의 도취경으로 그녀를 끌고간다.(이대로 세상의 끝이 와 버린다면) 이라거나,(이대로 그만 일신의 파멸을 가져온대도)하는 감상이 강하게 유혹한다.(상, 220)

감각이 전혀 색다른 테크닉의 상현과의 행위는 정우의 가슴에 희한한 만족감을 준다. 여체를 하나의 생물체로서밖에 느낄 줄 모르는 듯한 외과의인 세찬의 거칠고 무심함에 비해, 상현은 꿈과 낭만으로 여체의 신비함을 음미하는 듯한 자세로 나왔다. 상현은 여자의 육체를 존대할 줄 안다. 감동으로 경탄하고, 그것이 지닌 성능을 계발시키기 위해 성의 있는 테크닉의 노력을 한다. 두 남자의 차이를 생각하자 정우는 갑자기 세찬에게 화가 치밀었다.(상, 214)

오랜 세월, 장난스런 기분으로 제 남편 이외의 남성들에게 부질없는 관심을 뻗치곤 해오던 정우는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한상현의 어딘지 전율을 느끼게하는 육체적 매력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녀의 가슴에 되살아났다.(상, 271)

그를 어느 한 남성보다 덜 좋아한다는 기분적이던 느낌은 막상 이렇게 살과 살이 맞닿게 됨으로써 그 피부만은 분명히 호오의 감정을 정직히 가려내 준 것이다.(상, 305)

만약 세찬이 상현보다 더 그녀의 육체를 만족시켜줄수만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그렇기만 하였다면 정우는 아무런 불만이나 가책없

이 그하고도 충분히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감정세계라는 것을 깨달았다.(상, 308)

정우는 상현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난 후 자신의 일탈에 대해 반성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은밀한 기쁨과 들뜬 마음을 갖는다. 상현의 성의 있는 테크닉에 큰 만족감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육체를 존대하지 않는 남편 세찬에게 화가 치밀어 오른다.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와 욕망을 자신이 없는 사이에 간호원과 육체적 관계를 맺은 남편 세찬의 행위에 대항한 권리행사 자격이라고 생각한다. 성적인 감각과 쾌락에 매우 충실하고 죄의식 없이 해맑은 작중 정우의 모습은 당시에는 보기 드문, 남편과 성적으로 평등한 해방적 주체로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우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규정된 여성적 역할을 거부하고, 해방된 주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양한 행위를 시도한다.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질서는 남편의 권위와 부도덕한 행위를 묵과할 것을 강요하고, '인내하는 아내'와 '헌신적인 어머니'라는 전통적 여성상을 내면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우는 이러한 사회적 기대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외도한 남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남편의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자신도 후에 동일하게 외도의 기회를 가질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이러한 태도는 정우가 "무위도식하는 밥벌레 같은 인간"이 아니라 "생의 목표가 여자가 아닌 일을 욕망"하며 남편의 억압적이고 권위적 태도 앞에서도 순응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병순이 "한국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여성의 육체적 욕망'을, 그것에 대한 거의 전적이라 말하여 무한한 긍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그려내"어 "남근적 욕망의 대상에서 벗어난, 실재하는 욕망 주체로서의 여성의 육체를 비로소 생산"[25] 했다고 평가받은 것처럼, 작가는 『안개부인』에서 정우를 통해 남성의 타자로서 수동적으로 존재하던 여성이 아닌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을 만들어 냈다.

25 정호웅, 『약전으로 읽는 문학사』2, 소명출판, 2008, 231쪽.

성적 욕망에 충실한 정우의 행위는 자기 욕망의 자각과 표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단지 가족의 유지와 돌봄에 헌신하는 존재로 머무르지 않고, 개인으로서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중시한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사회가 강제한 규범적 여성 정체성, 즉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의 여성상을 해체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우가 성적인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장면들은 남성적 규범에 의해 억압된 여성 욕망을 가시화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성적 주체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우는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종속적 위치에 머무르기를 거부한다. 그녀는 남편이나 연인과 같은 남성 인물에 의존하여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고, 관계의 주체로서 스스로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남성 중심적 규범 속에서 독립적인 여성의 위치를 모색하는 과정이자, 해방된 주체로 나아가고자 한 모습이다.

한편, 『안개부인』에는 모성성의 탈피를 통한 주체되기의 모습 또한 잘 드러나고 있다. 보부아르는 모성에 관한 두 가지 편견을 고발하는데 "모든 모성애라는 것이 그것만으로 여성을 충분히 만족하게 한다는 생각"과 "아이는 어머니 품 속에서 확실한 행복을 발견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보부아르는 모성애를 본질적인 것, 항상 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특히 "인간 형성"이라는 가장 어렵고도 중대한 기획을 여성에게 맡긴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모순으로 여기는데 그 이유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욕구불만의 여자들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26] 이러한 보부아르의 입장은 모성은 여성이 가지고 태어나는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역할이며, 그것이 여성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안개부인』의 정우는 기존의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모성성 가득한, 희생하는 여성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남편 세찬은 정우에게 늘 "모성애가 결핍되어 있"는 "아이들 소중한 걸 모른"(상, 162) 인물이라고 말한다. 정우는 2남 1녀를 두었지만 그녀에게 자녀를 뒷바라지 하는 행위는 그저 주어진 따분하고 귀찮은 일일 뿐이다. 아이들을 서울에 두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것도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주의 계획에 따라 벌인"(상, 14)일이기 때문이다.

26 변광배, 앞의 책, 288쪽.

도대체 말이 안 된단 말야. 어린것들이 단둘이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걱정 한 번 하는 적 없이 남의 살림을 억지로 맡아 하는 것처럼 말야. 집안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편이 무슨 고충이 있는지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었느냐 말야.(상, 57)

정우가 오면 옥희는 기쁘고 그리워서 잠시도 그 치마꼬리를 놓지 않으려 한다. 그럴 때면 정우는 별스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 여린 손목을 똑 잡아떼어내며,

"애는 왜 이렇게 매달리니?"

하고 밀어버린다.

세찬은 그런 정우가 불만이다.

"당신은 여자치곤 인정이 없는 편이야. 모성애 같은 걸 찾아 볼 수가 없어."한다.(···)

"진정한 모성애를 모르는 여자같애, 당신은. 교육적 자세하고는 또 다르잖아?"

"어휴우 모성애, 교육적, 그렇게 거추장 한 건 별수 없어요. 워낙이 내갠 없던 건지도 모르니까."(상, 288-289)

이런 판국에도 이상한 것은 정우는 다른 여자들처럼, 남편보다 아이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거나 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떻든 세찬이 잘 키워가리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그녀는 세찬의 말마따나 모성애가 결핍된 여자였단 말인가?(하, 225-226)

보부아르가 모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결혼과 모성이 여성의 자유로움의 가능성을 빼앗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27] 『안개부인』의 정우는 그런 문제의식을 체현하는 인물이다. 정우는 모성을 여성의 본질적 속성으로 전제하는 사회적 통념을 거부하고, 그로부터 탈피함으로써 주체성을 모색한다. 정우에게 모성은

27 최애희, 앞의 논문, 35쪽.

무조건적 삶의 희생과 헌신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 당시는 여성을 어머니의 역할로 고정하고, 모성을 여성 정체성의 핵심이자 궁극적 만족의 원천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로서 기본적인 애정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삶의 존재성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음을 느낀다.

결국 정우는 모성을 여성 정체성의 절대적 본질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의 한계를 직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탐색한다. 이러한 태도는 모성을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된 역할로 파악한 보부아르의 입장과 긴밀히 상응한다. 정우는 모성을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여성의 자아를 전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자녀와의 관계는 단순히 헌신과 희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갈등과 긴장을 수반한다. 심지어 작중에서 동창생 영호를 만나기 위해 자지 않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고, 아들들 뒷바라지에 시골에서 늘 뒷전으로 떨어져 있는 딸에 대해서도 매우 매정하게 구는 인물이다. 정우를 통해 보여주는 기존에 보았던 애끓는 모정이나 어머니의 희생과는 다른 파격적인 서사는 모성을 여성의 본질로 신성화하는 관습적 담론을 해체하고, 동시에 여성의 개별적 욕망과 자율성을 부각시킨다. 즉 정우에게 모성은 삶의 일부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존재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작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모성, 특히 남편 세찬이 불만으로 여기는 모성애의 결핍에 대해 정우는 모성을 삶의 전부로 내면화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사회가 부여한 타자적 규정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이는 여성을 모성으로 환원하는 담론에 대한 저항이자, 주체적 자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개부인』은 정우의 서사를 통해 모성성의 탈피가 곧 여성 주체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임을 드러내며, 모성애의 부정을 통해 가부장제적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4 존재 의미의 상실과 해방된 주체되기의 좌절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여성해방의 문제를 제기한다. 오늘날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열등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사실에서 형

성되는 것이며, 해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를 들고 있다. 더불어 보부아르는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속에서의 평등"보다 "평등 속에서의 차이"를 주장하고 남자가 진정한 주체가 되고자 할 때 그를 인정해 주는 자는 자유와 초월성을 가진 또 다른 주체인 여성이라는 "평등 속에서의 차이", 그리고 남녀해방은 남녀 모두의 행복을 결정짓는 선결조건임을 주장한다.[28] 이러한 보부아르의 주장은 작가가 『안개부인』을 통해 남녀 간의 "인격적인 상호 존중"과 "우애적 이해와 협조"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정우는 수동적인 타자로 존재했지만 끊임없이 주체로서의 삶을 찾고자 열망하는 인물이다. 동시에 편안하고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수동적인 타자를 지향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말미에서는 그녀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 속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사회적 규범이 여성에게 부과한 역할(순응적 아내, 자애롭고 헌신적인 어머니 등)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욕망 사이에서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상태를 형상화한 것이다.

> 이게 결코 영원과 통하는 행복이 아닌 줄 자각하면서도 찰나적 기쁨이 최상의 도취경으로 그녀를 끌고 간다. (…)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앞서 문제인 것은, 정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남편이나 아이들과 헤어질 것은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다는 그 점이었다.(상, 219)

> 세찬을 생각할 때 정우는 그가 제 남편이라기보다, 제 보호자, 이를테면 아버지나 큰오빠나 그러한 남성들과 비슷한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이다. (…) 세찬의 경우 그는 정우 앞에 그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리이드 해 오던. (…) 그러니까 혈육이나, 아니 그보다 더한 존재로서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굳건했다.(상, 274)

28 변광배, 앞의 책, 325-333쪽.

당신은 제 어리석음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정말 염치없는 여자라는 것을 제 스스로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악처요 악모였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유복한 제 환경을 알지 못하고 식생활에도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겸손을 모르며, 결혼 후 한 번도 제게 물질적 고통을 준적이 없는 당신이었음을.(…) 우리 다섯 가족이 한 집안에 모였을 때 우리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였던가를, 지금 모두 그것을 잃게 된 마당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하, 223)

정우는 남성의 타자로서 여성 주체를 향한 해방을 꿈꾸었지만 결국 전복적 타자를 향한 갈망은 이루지 못한다. 그것은 60년대라는 시대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여성 대부분은 개별적 주체가 아닌 아내나 어머니라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속에서 존재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우가 세찬에게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때 세찬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정우라는 주체적인 여성의 행위가 아니라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교육을 담당하는 주된 양육자로서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우 역시 가사와 양육의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그녀가 인정받는 것은 집 안팎의 가사를 경영하는 주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이 주어진 가족구성원의 자리에서 박탈될 경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여성 주체로서의 해방은 불가능해진다. 정우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남편의 말에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며, 성적인 욕망의 표출도 자연스럽게 하는 인물이지만 세찬이 정우의 외도를 알고 집을 나선 순간부터 해방의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진다. 외도가 들통난 후 세찬의 폭풍 같은 분노에도 정우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전부터 그어놓은, 우리 부부의 의무와 권리의 한계라는 것을 재확인해보고 시작”하겠다며 “당신이 위약했을 때 저는 이렇게 소동을 벌이지 않았어요.”(하, 169)라고 말할 만큼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 그러나 남편 세찬에게 모든 것을 내놓고 아이들 곁을 떠나는 순간부터 정우는 그동안 누려왔던 풍요로움에서 멀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갑자기 그는 일어나 양복장의 문을 열었다. 정우의 의복은 아마 거의 모

두라고 생각될 만큼 장안에 가득 걸려 있었다. 서랍을 열어도 값진 옷들이 그대로 있고, 심지어 내의나 손수건, 버선까지도 죽으로 쌓인 채 고스란히 있다. (이 대로 다 두고 정말 입은 채로 나갔나?)(하, 191)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 고창댁에게만 시골에 가는 거라고 이르고 거리로 나온 정우의 마음은 실상 그다지 비참해 있진 않았다. 그녀는 인생을 절망한다거나 비참한 각도에서만 보고 느낀 경험도 없고, 또 그런 성격도 아니었다. 사만 오천 원의 다발 돈을 내놓고 나온 정우의 백 안에는 오만 원에서 오천 원만 덜어 내놓고 쓰던 나머지의 백원짜리와 십원짜리 몇 장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현금까지 내놓으라고 하지 않은 세찬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히 생각한 정우는 마치 그것으로써 일종의 응수를 하는 기분으로 깨끗이 내놓고 나왔던 것이다.(하, 201)

지나간 세월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던가를 정우는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닫게 되었다. (…) 수도가 아닌 우물의 수질과 자외선이 강한 농촌의 태양 때문에도 더 정우의 얼굴은 까매지고 수척해졌다. 그날 이후 정우는 편지조차 쓸 수 없게 되었다. 우표값 칠 원도 남지 않은 것이다. 큰 질녀나 올케에게 그 돈을 꿔어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하, 228)

보부아르가 여성 해방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말한 것은 이 시기 남성 주체의 타자로서 여성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이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 타자로 만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안개부인』의 정우는 성실한 의사 남편을 둔 부유한 유한마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인물이다. 그러나 남성들과의 관계가 들통나고 그녀의 안락한 삶의 기반이었던 절대적인 경제권력을 가진 남편과의 관계가 흔들리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박탈당한다. 가정 밖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정우는 집을 나선 순간에도 비참하지 않고, 앞으로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는 천진함, 무지함을 드러낸다. 심지어 가지고 있던 돈도 남편에게 응수하는 마음으로 다 내놓고 나온 상황이다. 그 결과 그녀의 경제적 취약성은 나중에는 우표 한 장 살 돈도 없는 상황으

로 몰아가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난한 올케의 집에서 조카들의 경제활동에 편승해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고 있을 뿐이다. 급기야 같이 독일로 떠나자고 정우를 찾아온 한상현을 만나고 온 올케에게 "지금까지 내 소망이라는 건 애들하고 우리 부부가 어떻게 좀 더 오붓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하, 243)였다고 말하는 상황에 이른다. 남편과 동등하게 바람을 피우겠다고 공언하고 호기롭게 가진 것을 내려놓은 정우의 결말은 가정으로의 복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우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며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고, 박영호로 인해 알게 된 윤마담이 "지금껏 쌓아 올린 그 가정을 버릴 생각"(하, 208)을 하지 말고 가정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한상현과 박영호와의 관계에 대해 명분을 세워주겠다는 제안를 받고, 올케의 충고를 들으며 집으로 귀가한다. 이러한 결말은 사회경제 구조로 인해 남편의 힘이 아니라면 가정 부인의 경제적 독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성 주체로서의 해방의 욕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을 보여준다. 정우는 유복했던 자신의 환경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적 곤란을 체험한 후에야 자신의 욕망이 어리석었음을 인지하고 적당하게 현실에 순응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베티 프리단은 여성이 자신의 타자성을 비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여성적 신비"로 칭하면서 그것을 "오랜 가부장제와 사회제도 등이 여성에게 부여해 온 여성성을 미덕으로 삼아 여성 자신이 거기에서 존재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9] 정우가 결국 집으로 돌아간 것은 그녀의 실존의 근거를 여성적 신비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우의 귀가를 단순히 해방 주체의 탈주 욕망의 실패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정미선은 정우를 돕는 올케, 윤마담 등의 조력자들이 정우를 현모양처 담론으로 이탈하게 하지만 그들의 발화는 정우의 감정과 실익을 위해서만 발화되고 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본다. 그들이 세찬을 비롯한 남성 주체들의 젠더화된 권위를 탈신화 하며 정우의 서사를 그 규범성으로부터 이탈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30] 즉,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소

29 베티 프리단, 김행자 역,『여성의 신비』, 평민사, 1989, 18쪽.

30 정미선, 앞의 논문, 150-151쪽.

재와 내용을 원만히 해결하거나 봉합하는 것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규범적인 관습과 그 질서에 가려져야 했던 잠재적 욕망은 일시적으로나마 표면화"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31]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작품의 마지막에서"그 어느 때보다 사납고 맹렬한 남자의 행위는 유린과 가학을 연상시킨다고는 하나, 일찍이 보지 못한 자신과 정력을 과시하며 신선한 만족"(하, 297)을 주는 남편에게서 새로운 섹슈얼리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일반적으로 안개는 미래의 불확실성, 사고나 정체성의 혼란, 모호한 상황, 가려진 진실, 은폐된 욕망, 우울, 신비함, 보이지 않는 억압적 상황 등을 은유한다. 『안개부인』은 주인공 정우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모호한 신비함이나 숨겨진 욕망, 미래의 불확실성, 보이지 않는 사회적, 제도적 억압,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탈주하지 못하는 모호한 여성 주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개부인』은 다양한 안개의 함의를 통해 60년대 대중장편소설에서 보기 힘들었던, 가정에 얽매어 있던 여성 주체의 성에 대한 욕망과 해방된 주체를 향한 열망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병순이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던 여성해방에 대한 의미 있는 문제의식을 잘 볼 수 있다.

5 나가는 글

전병순의 『안개부인』은 대중소설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1950년대 시작된 서구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이론의 한국적 수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여성 문학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 제기한 남성의 타자인 여성 주체의 정체성과 자각의 문제를 선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인공 남정우는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종속적인 존재로서 '타자화'된 위치에 머무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상황이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닫고, 여성 해방의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 남정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서사 구조는 보부아르가 지적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

31 최미진, 『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푸른사상, 2006, 37-40쪽.

재”라는 인식과 맞닿아 있으며, 여성의 삶이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인식을 암묵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안개부인』의 분석을 통해 작중의 여성 주체가 자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부아르의 논의가 어떻게 작품 안에 스며들었는지 분석하고 당시 작품에서 보기 힘든 파격적인 여성 주체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안개부인』은 여성의 욕망, 자율성, 주체적 선택을 문제 삼음으로써 여성을 부속적인 위치에 놓는 근대 가족제도와 성 역할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여성을 남성 중심 체제의 ‘타자’로 규정하는 것을 여성 작가의 시선으로 비판하고, 전복적 타자로서 여성 주체의 정체성 확립과 실존의 사유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제2의 성』과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안개부인』은 가부장적인 주인공 세찬과 현모양처이지만 주체적인 여성 의식을 지닌 남정우를 통해 당대의 다양한 사회문제와 가부장적 질서하에서 타자화된 존재인 여성의 자각의 과정과 좌절을 보여주었다. 작가는 1969년『안개부인』초판에서 보부아르의『제2의 성』을 숙독한 후 여성적 자각이 싹터 여성과 인간의 자유를 생각하면서 여성작가로서의 길을 찾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부아르의 저작을 통해 ‘여성적 자각’, ‘여성과 인간의 자유’에 감명을 받은 작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주체가 아닌 만들어지는 ‘타자’이지만, 그것을 전복하고자 열망하는 주체적인 여성으로『안개부인』의 주인공 남정우라는 인물을 만들어 냈다. 보부아르는 역사 속에서 여성은 항상 주체의 상대, 즉 타자로 규정되어 여성은 남성 주체가 규정한 아내, 어머니, 순종적 존재로만 정의되었다고 본다. 정우는 억압적인 가부장제 안에서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로 규정되고, 사회적 존재가 아닌 남편과 가족을 위한 기능으로만 평가되는 전형적인 타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우는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좋은 아내’, ‘훌륭한 어머니’라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을 억압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타자성을 벗어나 주체로서 욕망하는 권리를 추구하며 남성과 평등한 주체로 서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안개부인』은 주체가 되지 못한 타자화된 여성 남정우를 통해 당시 여성의 현실을 매우 잘 보여주었다. 보부아르는 모든 여성의 역사는 남성이 만들었으며 그 결과 여성은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자를 정의하는 대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결혼한 여성은 집안일

을 통해 기생적이고, 종속적인 입장에 놓이고, 결혼의 비극은 개인의 역사나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제도상의 결함으로 경제구조의 각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개부인』의 정우는 남편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이 정의하는 대로, 기생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고 싶은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 정우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남편의 타자가 아니라 주체로 서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가정 부인이 아닌 성적 욕망을 가진 여성으로서 여성적 주체성을 갈구하기도 한다. 『안개부인』의 정우는 여자들의 불행과 몽매가 성의 미개방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당대 가정 부인으로서는 보기 힘든 파격적인 성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한 까닭에 남편 이외의 남자와 파격적인 성행위를 감행한다. 성적인 감각과 쾌락에 매우 충실하고 죄의식 없이 상황을 즐기는 작중 정우의 모습은 당시에는 보기 드문, 남편과 성적으로 평등한 해방적 주체로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 『안개부인』에는 모성성의 탈피를 통한 주체되기의 모습 또한 잘 드러난다. 정우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규정된 여성적 역할을 거부하고, 해방된 주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양한 행위를 시도한다.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질서는 남편의 권위와 부도덕한 행위를 묵과할 것을 강요하고, '인내하는 아내'와 '헌신적인 어머니'라는 전통적 여성상을 내면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우는 이러한 사회적 기대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보부아르의 입장은 모성은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역할이며, 그것이 여성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작가는 정우를 통해 그러한 생각을 드러낸다. 『안개부인』의 정우는 작품 안에서 기존의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모성성 가득한, 희생하는 여성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정우는 모성을 여성 정체성의 절대적 본질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의 한계를 직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탐색한다. 이러한 태도는 모성을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된 역할로 파악한 보부아르의 입장과 긴밀히 상응한다. 정우는 모성을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여성의 자아를 전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정우를 통해 보여준 파격적인 서사는 모성을 여성의 본질로 신성화하는 관습적 담론을 해체하고 동시에, 여성의 개별적 욕망과 자율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즉 정우에게 모성은 삶의 일부일 뿐 그것만으로는 존재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우는 남성의 타자로서 여성 주체를 향한 해방을 꿈꾸었지만 전복적 타자를 향한 갈망은 이루지 못한다. 그것은 60년대 여성은 개별적 주체가 아닌 아내나 어머니라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속에서 존재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우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남편의 말에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며, 성적인 욕망의 표출도 자연스럽게 하는 인물이지만 세찬이 절연한 순간부터 경제적인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남성의 타자로서 해방의 가능성이 멀어졌다. 정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적 곤란을 체험한 후에야 자신의 욕망이 어리석었음을 인지하고, 적당하게 현실에 순응하는 선택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남성 주체들의 젠더화된 권위가 사라지면서 잠재된 욕망을 표면화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지닌다.

『안개부인』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주의 담론이 본격화 되기 전 타자로서의 여성 주체가 해방과 자각을 호출한 서사로서 60년대 대중장편소설에서 보기 힘들었던 주인공의 성에 대한 욕망과 해방된 주체를 향한 열망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안개부인』은 당대의 다른 여성 작가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전병순이 가지고 있었던 여성해방에 대한 의미 있는 문제의식을 대중적으로 매우 흥미롭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 되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전병순, 『안개부인』상·하, 국민문고사, 1969.

_____, 『안개부인』상·하, 자유문학사, 1979.

『서울신문』, 『주간중앙』

단행본

변광배, 『제2의 성, 여성학 백과사전』, 살림출판사, 2007, 116쪽; 288쪽; 325-333쪽.

정호웅, 『약전으로 읽는 문학사』2, 소명출판, 2008, 231쪽.

최미진,『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푸른사상, 2006, 37-40쪽.
베티프리단, 김행자 역,『여성의 신비』, 평민사, 1989, 18쪽.
시몬느 드 보부아르, 이정순 역,『제2의 성』, 을유문화사, 2025, 10쪽; 42쪽; 389-576쪽; 612쪽; 767쪽.

논문

김복순,「1960년대 소설의 연애전유 양상과 젠더」,『대중서사연구』 제19호, 대중서사학회, 2008, 7-56쪽.
손혜민,「연애대중과 소설: 1950-60년대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115쪽.
오화영,「현대소설을 통해 본 낭만적 사랑에 관한 연구: 여성잡지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이명희,「인간 삶에 대한 성찰, 시대와 사회 읽기-전병순『강원도 달비장수를 중심으로」,『상허학보』 제36호, 상허학회, 2012, 401-442쪽.
임금복,「현대문학사의 복원-문학사 밖의 문인들 ; 전병순의 1960년대 대중 장편소설 연구」,『한국문예비평연구』 제27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55-90쪽.
장미영,「여성 자기서사의 서사적 특성연구-『여원』 수기를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61-194쪽.
정미선,「전병순의 작가적 생애와 소설세계 연구-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여성 주체 형상을 중심으로」,『한국문예창작』 제23권 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4, 131-164쪽.
_____,「『독신녀』의 영화화에 나타난 1970년대 한국 문화의 젠더 정치—소설『독신녀』와 영화 〈독신녀〉의 관계적 규범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어문논집』 제99호, 중앙어문학회, 2024, 211-243쪽.
_____,「70년대 전병순 소설의 탈혼 모티프에 나타난 파레시아적 여성 주체의 젠더 정치-『속 현부인』과『그 눈물에 넘치는 강』을 중심으로」,『비평문학』 제97호, 한국비평문학회, 2025, 95-127쪽.
조혜란,「『제2의 성(Le deuxieme sexe)』의 초기 한국어 번역과 수용: 이용호

의 1955년, 1964년 번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155쪽.
최다정, 「1960년대 여성문학의 정동정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1-289쪽.
최미진, 「사회적 멜로드라마의 역사성과 대중성—전병순의 『절망(絶望) 뒤에 오는 것』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319-343쪽.
_____, 「부인명(夫人名) 대중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정비석의 〈자유부인(自由夫人)〉과 전병순의 〈현부인(賢夫人)〉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2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185-203쪽.
최애희,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에 나타난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55쪽.
하채현, 「10.19: 비국민과 개죽음-『절망 뒤에 오는 것』, 『여수의 눈물』,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중심으로」, 『픽션과논픽션』 제5권 1호, 픽션과 논픽션학회, 2023, 135-160쪽.
허예슬, 「한국 현대 가정 서사 연구: 1950-60년대 신문연재소설에 나타난 식모와 가정교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 1-232쪽.

Abstract

Feminism of Equality and the Journey Toward the Subversive Other
–On *Lady of the Mist(AngaeBuin)*

Kang Ok-hee

Despite receiving significant popular acclaim as a work by Jeon Byeong-sun, a representative female novelist of the 1960s and 1970s, *Lady of the Mist (AngaeBuin)* has been evaluated merely as a derivative of Jeong Bi-seok's Madame Freedom (JayuBuin) and as a conventional work dealing with the infidelities of leisured women. However, *Lady of the Mist* captured readers' interest through its narrative variation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its era, which differed from the familiar conventional narratives derived from the social context of “Madame Freedom” as a synonym for leisured ladies or liberated women. *Lady of the Mist* is a narrative that invoked the liberation and awakening of the female subject as the Other before feminist discourse became established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portrayal of a transgressive female protagonist who possesses desires for liberation as the Other of the male subject, as well as the desires of a sexual subject within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existence for women in the 1960s, the work reveals issues concerning sexual desire as an autonomous woman, female autonomy as a subject, and the problems of the modern family system and gender role ideology that position women in subordinate places. It holds particular significance in that it anticipated the issues of identity and awakening of the female subject as the Other of men raised in Beauvoir’s The Second Sex, at a time in the 1960s when feminism and women’s literature had not yet been fully received in Korea.

Key words: Jeon Byeong-sun, *Lady of the Mist*, The Second Sex, feminism, female subject, the Other

논문제출 / 2025.11.15.
논문접수 / 2025.11.16.
게재확정 / 2025.12.08.